

受戒番號 第 2566 - 01001 號

지역단 번호

수계자 일련번호

八關齋戒牒

八關齋戒法은 三世諸佛의 큰 眞理이며 菩薩과 四部大衆이 聖人의 자리에 들어가는 要緊한 門이요, 모든 罪業을 滅하고 萬行을 닦아 果位에 오르는 根本이다. 八關齋戒法은 盧舍那佛에서 釋迦牟尼佛에 傳하시고, 釋迦牟尼佛은 여러 比丘들에게 傳하시고, 여러 比丘들은 서로 傳하여 모든 衆生들로 하여금 밝고 즐거운 解脫의 길에 이르게 하였다.

戒法은 無量한 法門 가운데 根本이 되므로 戒律로 因하여 禪定이 생기고, 禪定의 힘으로 智慧를 발하여 無上佛道를 成就하는 것이다. 八關齋戒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것 같아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 하며, 病든 이가 快差한 것과 같고, 갇혔던 이가 풀려남과 같으며, 멀리 떠났던 이가 집에 돌아온 것과 같다. 또 戒는 맑은 물과 같아서 戒를 지니므로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어 多劫生來에 지어온 모든 業障을 消滅할 수 있다.

過去 모든 부처님들이 이 戒法에 依止하여 成佛하시었고, 未來의 모든 菩薩들은 이 戒의 힘으로 萬行을 닦아 圓滿한 修行할 것이며, 現在의 모든 菩薩들은 지금 배우고 있나니, 佛子들은 이 戒를 스승으로 삼아 解脫의 저 언덕에서 永遠한 幸福을 누릴지이다.

受戒弟子 法名 ○ ○ 姓名 ○ ○ ○

證 明 : 第5教區本寺 法住寺 祖室 千湖月棲 大宗師

傳戒大和尚 : 布教院長 海山梵海

羯磨阿闍梨 : 法住寺 住持 無山靜道

教授阿闍梨 : 布教部長 禪業

維 那 : 布教研究室長 龍珠

引 禮 : 慧皎, 潤星, 慧眼, 祥嚴, 眞淨, 眞相, 日均, 賢眞,
德龍, 訥珉, 仁鏡, 諸幻, 無因, 齊亮, 普陀

佛紀 2566(2022)年 9月 24日

湖西第一伽藍 俗離山 法住寺 金剛戒壇

大韓佛教曹溪宗 布教院長 海山梵海

